

Committed to Excellence : The Vinous World of Andrea Franchetti

안드레아 프랑게띠의 와인 미학(1)

나는 와인이 단순히 고장(place)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그 고장에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장 자체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신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와인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풀바디이면서도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와인을 만드는데, 나는 이처럼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을 따르고 싶지는 않다. 나는 견고한(hard) 와인을 만들고 싶었다. 내 무의식에 투영된 이상적 와인의 모습은 이렇다. 아주 깊이가 있고, 강렬하며, 여운이 대단히 오래 지속되는 농축된 와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농축도이다. - 안드레아 프랑게띠, 2002년



글 이세용 와인평론가 사진협조 (주)비노비노

와인의 개성과 와인메이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특색 있는 '컬트 와인'이자 또한 그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 이름이기도 한 테누따 디 트리노로(Tenuta di Trinoro). 또한 시칠리아 동부에 있는 에프나 화산(Mount Etna)의 정기를 받아 Passopisciaro, Franchetti 등 새로운 명품 와인을 선보이고 있는 빠소삐쉬아로(Passopisciaro) 와이너리. 이들 와이너리의 소유주이면서 와인메이커인 안드레아 프랑게띠(Andrea Franchetti)가 지난 3월 초 모처럼 한국을 처음 다녀갔다. 그는 3주 정도의 아시아 방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들렀는데 너무도 짧은 일정이라서 그 흔한 '와인메이커 디너'도 한 번 갖지 못한 채 떠났다. 때문에 수입상 <비노비노> 주최 소규모 시음회에 참석했던 필자는 비록 뒤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와 인동네 애호가들과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안드레아 프랑게띠를 본 칼럼의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다뤄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모두에 인용한 에피그래프에서 드러나듯이 프랑게띠는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보인다. 그가 만드는 와인만큼이나 개성이 독특하고 강렬하다. 일찍이 호주 와인 현대화의 대부였던 맥스 슈버트(Max Schubert)는 와인과 와인메이커의 관계를 이렇게 설파했다. "와인메이커가 와인에 자신의 개성을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의 철학이 와인을 구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와인은 그 속에 와인메이커가 심고자 했던 생각이 깃들여 있다. 그의 성격이 와인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안드레아 프랑게띠의 경우, 와인과 와인메이커의 양자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 맥스 슈버트의 발언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프랑게띠 자신도 어느 인터뷰에서 "와인은 생각이다" (Wine is thought)라고 말한 바 있다. 와인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 또는 '마음'에 달려 있다. 어떻게 포도밭을 가꾸고, 어떻게 와인을 양조하는가에 따라 와인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스타일'은 해당 와인을 만드는 '사람'에 다름 아니다. 프랑게띠는 "와인은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도 생각이다" (Love is thought)라고 말했다. 와인이나 사랑 모두 생각과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와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범상치 않은 안드레아 프랑게띠의 삶의 이력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안드레아 프랑게띠를 보는 시각

젠시스 로빈슨(Jancis Robinson)은 2002년 3월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투스카니의 별난 와이너리' (a Tuscan eccentric)라는 글에서 Tenuta di Trinoro와 안드레아 프랑게띠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로빈슨은 프랑게띠가 영화배우 이브 생 로랑을 닮았다면서 그가 영화 쪽으로 나갔더라도 배우로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겠냐고 말한다.(실



제로 프랑게띠는 아방가르드 영화 두 편을 만들었고, 단역이지만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잠시 영화 쪽에 머물렀을 뿐 성공하지는 못했다)

로빈슨은 프랑게띠의 매력으로 잘 생긴 외모 말고도 유별나고 고집스런 그의 괴짜 기질을 꼽는다. 와이너리 부지의 선정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심을 품종의 선택, 그리고 와인의 가격 책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관행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와인을 만들기 이전의 삶 또한 유랑과 모험, 그리고 집착과 일탈로 점철된 드라마틱한 실존의 궤적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젊어서 상당 기간 마약에도 탐닉했고, 사춘기 시절엔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로마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자전거 여행, 아니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프랑게띠는 14세기 이래 대대로 이어온 귀족 가문 출신이다. 프랑게띠 가문은 다른 귀족 가문보다도 엄청나게 부유한 거부였다고 한다. 어머니의 나라 미국에서 태어난 프랑게띠는 생후 한 달 만에 로마로 거처를 옮겨 유년기를 보냈다. 부친은 안드레아가 28세 되던 해 아일랜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프랑게띠의 삶은 로마와 뉴욕을 오가며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궁핍 속에서 지적 방랑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약간의 사전 지식을 갖고 프랑게띠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직관적으로 느낀 바를 요약하면 대체로 이렇다. 반듯하고 단정하기 보다는 다소 흐트러진 앞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주는 대범한 유연성. 느리고 어눌하지만 섬세한 사고의 결을 보여주는 어투와 화법. 때로는 상대방을 다소 무안하게 만들 정도의 거침없는 솔직함. 그 두꺼운 뺨테 안경 너머의 세상을 응시하는 듯한 과묵함. 그리고 지식인 풍채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농부의 손. 그는 유랑의 영혼을 지닌 관조적 지식인-예술가의 이미지와 포도농사 및 와인양조라는 실천을 통해 지금-이곳의 세속적 초월을 시도하려는 비저너리 와인메이커 이미지로 내게 투영되었다.

사실 와인 저널리즘을 통해 알려진 안드레아 프랑게띠의 이미지는 다소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측면도 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은둔과 파격을 즐기는 컬트 와인메이커! 와인동네의 기인 또는 괴짜로만 프랑게띠를 부각시키거나 그가 만든 와인의 '컬트성'만을 추켜세우게 되면 이야기가 흥미로울 순 있다. 그러나 와인업계는 상업주의로, 또한 저널리즘은 선정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Trinoro의 충격 :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뉴욕에서 몇 년간 이탈리아 와인을 수입하여 배급했던 경험 말고는 와인과는 별 인연이 없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와이너리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와인 인생'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와인산지로는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토스카나 남쪽 외진 곳에 위치한 사르테아노(Sarteano)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한참 산 속으로 들어가 인적이 드문 곳에다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Tenuta di Trinoro라는 와이너리를 구축한 사연은 무엇일까. 서울에서 프랑게띠를 만났을 때 그는 한 마디 특 던지듯이 대답했다. 로마에서 살다가 도시 삶이 싫어졌고, 어느 날 프리노로 부근에서 하루를 묵은 뒤 거기서 살아야겠다고 결



심했다는 것.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운명적 결정치고는 너무도 단출하고 무심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프랑게띠가 나중에 필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문건에는 그 때의 상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어느 날 프리노로가 있는 오르치아 계곡(Val d'Orcia)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강렬하게 눈부신 햇빛과 건조한 공기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발 600미터 남향 산자락 한구석에 나무들 사이로 무엇인가 만들려다 만 커다란 빈터가 보였다. 그 숨겨진 자리는 마치 향기로운 잡초로 뒤덮인 양탄자처럼 보여 프랑게띠에게 후속 마무리 작업을 재촉하는 암시로 다가왔다고 한다. 1990년의 일이다. 프랑게띠가 1949년생이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불혹(不惑)을 막 통과한 나이다. 그는 바로 로마의 가족에게 자신이 새로 정착할 보금자리의 존재를 알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 만드는 일을 프리노로에 정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2년 동안 포도밭과 와이너리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프랑게띠는 트랙터 등 장비를 구입하고 현지의 은퇴한 농부 두 사람을 고용했다. 이들 세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산에서 바위와 돌을 파내고 치우는 중노동에 몰두했다고 한다. 어떤 날에는 하루 14시간을 일했고 프리노로의 소박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다. 바위와 돌덩어리는 1Kg에서 100Kg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노동의 강도는 그저 고단한 정도가 아니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이들이 제거한 바위와 돌은 무려 2000 입방미터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한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현지인 농부 두 사람은 일생에 그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러나 프랑게띠는 이때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가장 흐뭇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돈 많은 귀족 가문 출신의 프랑게띠는 장비와 인력에 거액을 투자하여 보다 손쉽게 일찍 작업을 종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게띠는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쪽을 선택했다. 마치 까미노 데 산피아고 대장정을 떠나는 영혼의 순례자처럼. 혹은 오체투지의 용맹정진을 감행하는 티베트의 수도승처럼.

그는 와이너리의 최초 설립자이자 소유자로서, 포도밭 관리의 책임자(viticulturalist)로서, 그리고 와인양조를 관장하는 와인메이커로서 와인 만들기의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외부의 유명한 컨설턴트를 영입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뛰어 들어 스스로 흘린 노동의 땀과 특유의 예술가적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품 와인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필자는 1990년부터 와이너리 조성이 착수되고, 이어 1992년부터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1997년 첫 빈티지의 Tenuta di Trinoro 와인이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안드레아 프랑게띠의 삶을 '프리노로의 충격'의 시기로 규정하고 싶다. 그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허기진 영혼의 거듭남이자 유랑하는 예술혼의 갱생과 정착의 계기였기 때문이다. ❖